

#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 과제\*

## Current Situ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Welfare challenge

김경민\*\* · 정기옥\*\*\* · 장세철\*\*\*\*

Kim Kyoung Min · Jung Ki Ok · Chang Sae Cheol

### Abstrac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of bachelors in the rural areas, there have been grown many foreign residents, the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first important thing is their early settlement in Korea. For those foreigners' settlement, systematic approach to Korean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Second, multi-cultural families need support to maintain their basic lives safely. Agricultural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s, moreover, also important for them. Third, healthy growth and training for the formation of the Self-Identity of their children are needed for those multi-cultural families too. Education for bring up their children as the global talents,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one of bringing up children also have to be supported. Fourth, the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is significant.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various programs to participat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required.

\* 본 연구는 2009년 한서대학교 대학원생 교내연구과제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수료. e-mail: 01194216401@hanmail.net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수료. e-mail: koflower@hanmail.net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chang@hanseo.ac.kr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농촌 다문화가족(Rural Multi-Cultural Families), 복지적 과제(Welfare challenge), 실태(Current Situation)

##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된다. 2008년도 89,341명 대비 215,543명 24.2%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해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였던 것이 1995년에는 3.4%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1.4%로서 10%를 넘어섰다. 즉, 100쌍 중 1쌍이던 것이 15년 만에 10쌍 중 1쌍으로 국제결혼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2005년 최근 통계상 국제결혼 건수가 최고에 달했던 해로서 당해 한국 사회 전체 결혼건수의 13.6%에 해당하였다. 그 후에도 국제결혼의 비율은 10%를 사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최명민 등, 2009).

외국인주민의 인구의 증가로 인한 단기 체류 성격보다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과 귀화 등의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또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 즉 다문화가족의 증가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언어숙달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 농촌생활의 문제,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파악과 복지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의미한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현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은 국내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경제위기 속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혼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성황으로 인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한 실태이다. 이전의 형태의 다문화가족 보다 가족이 많아지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박대식 & 최경은, 2009).

이에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을 대비하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으로 탈법적인 결혼 중개방지 및 당사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 지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2세대의 증가로 인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복지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시사점을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중심으로 ① 결혼준

비기, ② 가족형성기, ③ 자녀양육기, ④ 자녀교육기, ⑤ 가족역량강화기, ⑥ 가족해체기, ⑦ 전(全)단계의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복지적측면에서의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 과제에 관한 연구를 모색하고자 문헌 연구 고찰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은 농촌과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연구논문, 관련서적과 정부 정책자료, 공청회자료, 심포지엄자료, 정기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관련 법규를 활용하였다. 농촌, 다문화에 관련된 학술적 자료를 재분석하여 논문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 2. 농촌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의 실태와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이 미흡하다. 둘째,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일부 사업들이 여전히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생애주기란 인간의 보편적 삶의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연령에 따른 발달과 성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시기에 맞는 성장이 멈추면 결국 장애로 나타나 원만한 사회생활

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지체되기도 하며 낙오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연령에 맞는 적당한 성숙과 발달은 개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미원, 2009). 그 예로는 OECD(1998)에서는 생의 주기별 전이를 학령기전, 초등학교, 중학교 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결된 책임과 책임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의 비전이며, 정책의 방향은 가족전체 대상으로 포괄적 정책추진과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추진이다.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 2.1. 결혼 준비기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중개의 탈법을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 당사자 인권보호가 있다. 두 번째는 결혼이민예정자 사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입국 전·후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이 있다(보건복지부, 2008).

가족준비기의 시사점은 첫 번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구성비율 중 50%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결혼을 하고 있다. 이순형 등(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51%와 박대식 & 최경은(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53%로 50%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결혼 당사자들 간의 이해의 갈등과 인권침해, 국가이미지의 반하는 모습을 띄게 되며,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정보와 실제

의 일치정도에서의 37.6%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며 아내의 정보와 실제의 일치정도에서는 38.8%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이순형 등, 2006). 남편의 정보 중 직업에 대한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정보 중에는 성격이 많은 부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박대식 & 최영은(2008)에서의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에 의해 결혼을 고려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비교한다면 남편의 경우 결혼을 위해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경제적이며, 능동적으로 국제결혼에 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결혼 후 직업에의 잘못된 정보의 경우 다문화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일본에 결혼 이주여성들이 일 자리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초기에는 농업인의 아내 또는 위장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Piper, 1999).

다음은 국제결혼 이전의 한글교육 및 이외의 교육에 대해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다수 결혼 후에는 한국에 와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한글교육을 45.9%가 받지 못했으며, 그 외의 한국문화, 예절, 생활정보, 출산과 육아 등의 교육은 34.4% 받지 못했다. 또한 결혼 전 한글교육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4.11로 나타났다(이순형 등, 2006). 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온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결혼 초기에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결혼 전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 2.2. 가족 형성기

가족형성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이다. 두 번

제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한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의 생활보장이다. 네 번째는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이다(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족의 결혼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순형 등(2006)에서 결혼까지의 기간이 한 달까지는 63.0%이고, 6개월 이전까지 모두포함 한다면 결혼까지의 기간이 79.4%에 해당이 된다. 국제결혼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 한국을 접하는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와 남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부인과 남편의 응답 1순위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었다. 이처럼 가족형성기에 중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erry(1987)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적응을 높여주는 요인 중에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농촌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박대식 & 최경은(2008)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 '교육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 '강사와의 언어 소통이 어렵다', '교육내용이 매번 비슷하다'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진행 기관이나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강사를 갖추고 있지만, 이용자인 농촌 결혼이민자에게는 필요한 교육 찾기의 어려움과 교재의 난해함, 강사와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비방문 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에 대해 ① 교통편, ② 아이들 때문에 ③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음 ④ 참가하지 못함 ⑤ 교육이 너무 많아 번거로움 ⑥ 교육이 별로 유익하지 않음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이는 교통편이 도시지역과 달리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의 교육과 활동을 제공, 지원하는 교육장까지의 교통편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볼 수 있었으며,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욕구를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볼 수 있다. 이에 교육, 활동 프로그

램의 다원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욕구를 추가해서 볼 수 있었다.

### 2.3. 자녀 양육기

자녀양육기는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다. 첫 번째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의 배양이다. 세 번째는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이다. 네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이며, 의료 취약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자료인 <표 1>에 보면 미취학자녀, 만6세 미만의 아이들이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에 57.1%, 33,140명이었다. 다른 연령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 자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현황은 민간, 사립시설에 40.5%를 차지한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보육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에 가장 많은 44.4%였다(이순형 등, 2006). 이것은 미취학자녀들에 대해 공공의 시설이용 보다는 민간과 사립시설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보다 민간, 사립시설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보육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표 1〉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08년 7월 현재 (단위: 명, %)

구분	계	만6세 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 수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 참고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2.4. 자녀교육기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첫 번째는 아동의 언어·학습·정서 발달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이다. 세 번째는 빈곤·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원이다. 네 번째는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이다(보건복지부, 2008).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2008)의 지원 대책인 이 시기의 자녀들의 지원은 중요하다. 또한 취학 후에 자녀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보면 이순형 등(2006)에서 취학 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의 대화 시에 어려움 점은 54.2%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해서도 나왔다. 자녀가 취학 후까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혼준비기의 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가족형성기시기의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 한국어의 욕구가 불 충족 시에는 자녀양육시기까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2.5. 가족역량강화기

가족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이다.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이다. 두 번째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연계 강화이다(보건복지부,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향후 농업계획에 대한 조사(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에서는 45.0%가 '농업계획없음'이라고 하였고, 41.8%가 '겸업'이었다. 이는 자녀의 영농일 종사에 대한 입장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부인인 경우에는 '자녀가 영농일에 종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를 68.7%이고 남편의 경우에는 69.4%로 나타났다(이순형 등, 2006). 이것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업 종사인력의 감소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농업종사인력의 감소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녀들에 대한 농업 보다는 다른 업종의 종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2.6. 가족 해체시

가족해체시는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 부모 가족 보호 및 지원이다. 첫 번째는 한 부모 가족 지원이며, 두 번째는 요보호 아동 지원이다(보건복지부, 2008).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에 대한 이순형 등(2006)에서 6개월까지가 가장 높은 42.9%이고 1년이 29.3%로 초기 1년의 기간이 합하여 72.2%에 해당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결혼까지의 기간이 69.4%가 6개월 이전이었던 것과 같이 결혼 직전과 직후의 기간이 중요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을 고려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 조사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10.4%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려

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16%가 이혼을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설동훈, 이해경, & 조성남, 2006).

## 2.7. 전(全) 단계

전(全) 단계는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첫 번째는 사업추진체계 정비이다. 두 번째는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이다(보건복지부, 2008).

최근 외국인과의 혼인현황은 2005년 13.4%, 2006년 11.7%, 2007년 10.9%, 2008년 11.0%로 10%를 상회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통계청, 2009).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 및 복지적인 문제에 대한 욕구파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표 2>를 보면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현황을 보면 2005년 38.0%, 2006년 42.5%, 2007년 41.3%, 2008년 38.2%로 38%를 상회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은 10%에 비해 상당히 상회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의 이농현상을 고려해 본다면 농촌지역의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의 상회현상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보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농촌 지역 남성의 결혼난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농현상 가속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자체의 농촌 남성의 결혼 상담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농업인 단체와 함께 결혼상담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농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이카모토, 2006). 이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농촌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 2〉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현황

(단위: %, 건)

년	%	구분	건
2005년	38.0%	농림어업종사자	7,578
		외국인아내와 혼인	2,883
2006년	42.5%	농림어업종사자	8,292
		외국인아내와 혼인	3,525
2007년	41.3%	농림어업종사자	7,669
		외국인아내와 혼인	3,171
2008년	38.2%	농림어업종사자	6,459
		외국인아내와 혼인	2,472

※ 참고 : 통계청(2009),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 3. 농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적과제 및 개선방안

농촌 다문화가족의 행복변인에 대해 양순미(2007)에서 첫째, 결혼만족도, 어머니 친밀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둘째, 농촌의 국제결혼한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이나 영향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셋째, 국제결혼한 농촌의 아내들의 행복감에는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넷째, 아내들의 폭력경험 여부에 따른 행복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아내들의 행복에는 결혼지속기간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2008)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에서는 비전을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 두고 있다. 세부목표에는 첫째,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이다.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이며, 셋째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넷째는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이다. 보건복지가 족부의 세부목표처럼 농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 3.1. 조기정착의 중요성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앞에서 논의 해보았지만 6개월 전에 70%를 상회하였다.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 중 1년까지가 70%를 상회한다. 이것은 농촌으로 혼인을 해서 조기 정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한글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다양화 가 필요하다. 초기의 한글교육의 부재로 인해 이후 자녀보육과 자녀교육시에도 마찰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교육을 기초로 하여 조기정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대식 & 최경은(2008)은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방문교육확대, 교육장까지의 교통편은 교육프로그램 기관이 접근성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기관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방문교육, 교육장의 접근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실질적인 교육내용 구성이다. 기존의 기관중심적인 교육자 중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교재에서 이용자인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국제결혼에 농촌 남편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된다. ‘남편의 경우는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와 같이 수동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 후에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의 예가 자조모임으로 불

수 있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자조모임 조사에서는 가입 한 경우가 30.3%이고, 자조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9.4%이다.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자조모임 가입의사에서도 참여할 예정이 23.7%이고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것이 74.5%로 조사되었다(박대식 & 최경은, 2008). 농촌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능동적인 자세 전환을 위한 사회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

### 3.2.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다문화가족의 농지 소유면적 분포를 보면 '3,000평 이하'가 74.8% (369명), '3,001~5,000평 이하'가 12.8%(63명), '5,001평 이상'이 12.4% (61명)이다. 이것은 5,000평 이하인 경우가 87.6%이고, 우리나라 평균 농지소유면적(2007년)인 1.6ha(4,838)평 이하에 속하는 다문화가족도 다수 포함이 되어있는 실태이다(김이선, 정해숙, & 2008).

또한 다문화가족의 연간 가구소득에 대해 박대식 & 최경은(2008)은 '1,000만원 미만'이 12.2%, '1,000~2,000만원 미만'이 41.2%, '2,000~3,000만원 미만'이 41.5%이고, '3,000만 원 이상'이 4.8%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농가소득(2007) 31,967,000원에 못 미치는 다문화가족 농가가 94.9%에 속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실태는 우리나라의 평균 농지소유 면적이나, 우리나라 평균농가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많은 농지에서 경작을 요구하는 농촌 다문화 가족에게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해 주는 정책과 부가적으로는 농촌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고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농업관련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다음세대에 대한 농촌 후계 또한 순탄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김승권 등(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빈곤 경험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돈이 없어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전기료, 수도료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수도 등의 끊긴 경험', '생활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린 경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등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빈곤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김유경(2010)에서 2008년 1년간 다문화가족이 빈곤을 경험한 정도를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가지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가 31.5%로 여성 결혼 이민자보다 16%p 높았고 평균 빈곤 경험 정도도 남성 결혼이민자가 0.05정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보다 빈곤 경험율이 높았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는 두 지역 간에 3.9%p, 남성 결혼이민자는 3.1%p의 차이를 보여서 남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태국, 일본, 몽골, 중국 조선족,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기타 소수국가들과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편이었다. 이에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의 빈곤 또한 좌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 3.3.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자녀양육 및 교육 시 어려운 점 이순형 등(2006)에서 제일 상위의 합계는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이다. 이것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평균소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촌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과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또한 1순위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음'은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소득과 기타 여러 요소로 인한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외부출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으로 양육 및 교육의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또한 2순위에서의 성적과 학습이다. 다른 아이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한 욕구도 볼 수 있다. 3순위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정체성혼란을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자녀교육시에 어려움 점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면과 그리고 어머니의 본국의 차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자아정체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촌 다문화가족 아이들 자체적인 교육의 1차적인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아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4.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가 51.0%,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가 49.0%로 조사되었다(김외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이는 교육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기타 요소의 변수는 작용하겠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와 특히나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의 홍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수단이나 이동통신이 농촌에 비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의 접근용이성에 비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증진이 필요하게 된다.



근래의 1사 1촌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1사(회사)와 1촌(마을)이 자매결연 하여 일손 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농촌관광, 농촌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업(단체)은 농촌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제고를, 농촌마을은 기업(단체)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제고를 얻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운동(win-win)이다(위키 백과사전). 1사 1촌 운동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운동에 긍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사와 1촌에 있는 다문화가족과 연계를 하면서 농촌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본다.

또한 Whitley, & Kite(2006)는 사람들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집단화하여 부정적 속성을 중심으로 고정관념, 편견을 형성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에 소재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Bennett(2007)와 Gay(1977)을 수정·보완한 장인실 & 유영식(2010)에서 첫 단계인 인종, 민족, 문화, 성별에 대한 지식 습득 단계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시작 단계로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지구 상황과 세계적 역학관계 인식도 지식적인 측면으로 지구촌 안에서 강대국, 약소국 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게 사는 민족, 부유한 나라에 사는 민족들에 대한 지식과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 이해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정체성과 민족정체감 형성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인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다문화적 능력 배양 단계이다.

## 4. 결 론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의미한다(박대식 & 최경은, 2008). 외국인의 인구의 증가로 인한 단기 체류 성격보다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과 귀화 등의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또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 즉 다문화가족의 증가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문화적 차이와 농촌생활의 문제,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2008)에서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총 7단계로 주기별로 6단계와 전 단계를 포함한다.

첫 단계,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중개의 탈법을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를 지원한다. 시사점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탈법 방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전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며, 이는 농촌남편의 수동적인 부분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능동적인 면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전의 한글교육 및 한국에 대한 이외의 교육의 필요성이다.

두 번째 단계, 가족형성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시사점은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다. 다문화가족의 결혼까지 걸린 시간 조사에서 6개월 이전까지 79.4%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다문화가족의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으로 꼽는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장애요소인 필요한 교육 찾기 어려움, 교재의 난해함, 강사와의 의사소통이다. 이는 교육장으로서의 교통편,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욕구해소의 필요의 시사점을 갖는다.

세 번째 단계 자녀양육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의 지

원이다. 시사점은 비용부담의 어려움 개선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미취학자녀들은 공공보육시설보다 민간이나 사립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어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시사점을 갖는다.

네 번째 단계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시사점은 농촌 다문화 가족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나,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해서라는 난해함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의 한국어 수준 또한 중요하지만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글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시사한다.

다섯 번째 단계 가족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이다. 시사점은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자녀에 대한 영농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인력의 감소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인 가족해체시에는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 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이다. 시사점은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든 시기는 결혼 초기이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에 다시 한번 초기의 적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일곱 번째 단계 전(全) 단계에는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전국의 외국인과의 혼인현황에 비해 농촌지역의 외국인과의 혼인현황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맞춘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 번째는 조기정착의 중요성이다. 이는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장의 교통상의 편의와 교육

교재의 체계화와 교육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강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남편의 결혼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적극적인 자조모임, 동아리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이다. 농촌 다문화가족 농지 소유면적이 평균 농지 소유면적이 미치지 못하며 연간소득 또한 평균농가 소득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경작할 수 있는 농지 확보와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권장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회보험료, 전기, 수도세 생활비 등의 빈곤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농촌 후계교육 또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이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소득이 부족함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에 대한 감소와 대책 마련이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자아정체감 형성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국민의 다문화 사회이해 증진이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행사에 참여 및 사회활동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교통수단, 통신수단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1촌1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인식과 이해의 증진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중앙인사위원회 · 기획예산처 · 대통령자문빈부격차, 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김미원. (2009).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한영논총*, 13, 384~407.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신, & 심인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58-73.
- 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 방안연구. 농림부.
- 박대식, & 최경은.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 보건복지부. (2009). 2009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자료집.
- 위키백과사전. '1사 1촌 운동'. <http://ko.wikipedia.org/wiki/>
- 설동훈, 이해경, &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 이타모토 요코. (2006). 일본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실태 및 대응정책.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 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이숙정,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지원방안. 농림부.
- 장인실, & 유영식. (2010). 다문화 교육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방법의 효과성연구. *초등교육연구*, 23(1), 141~161.

-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 김정진. (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 학지사.
- 통계청. (2009).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 통계청. (2009).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 Bennett, J. A. (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erry, J. W. (1978).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eo Drie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223-239
- Gay, G. (1977).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Klassen, F.H & Gollnick, D.M.(Eds). *Pluralism and the American teacher: Issues and case studie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Colleges of Teacher Education.
- OECD. (1998). *Children an Families at Risk-New Issues in Integrating Servic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Piper, N. (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cross-Border movements into Japan. *AJWS*, 5(2), 69~99.
- Whitley B. E. & Kite M. E. (2006). *The psycholog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lmont: Thomson Wadsworth.

논문투고일: 2010. 5. 24

1차수정일: 2010. 6. 10

2차수정일: 2010. 8. 25

게재확정일: 2010. 9. 17